

보도시점 2025.12.15.(월) 배포 즉시 배포 2025.12.15.(월)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면, 고성장 가능성 1.36배 증가!

- 정보통신업이 2.69배로 가장 크고,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제조업은 1.39배 -
-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3종류를 모두 출원하면 고성장 가능성이 2.06배 -
- 고성장 가능성이 국내 출원만 하면 1.28배, 해외 출원도 병행하면 1.8배로 상승 -

중소기업이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을 선행하는 경우 3년 동안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는 고성장 가능성이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을 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1.3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이광형)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여 수행한 「고성장 중소기업과 지식재산」 연구보고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최근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고성장 중소기업이 저성장 시대에 일자리 창출 및 수출 증대 등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함에 따라 고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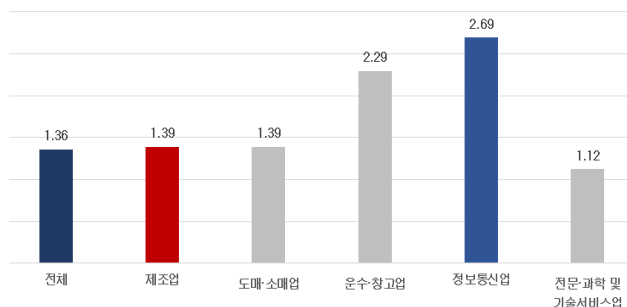
이에 따라, 이번 연구는 2009년~2023년 동안 중소기업 218,127개사의 경영 정보와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활동이 중소기업의 고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초로 실증 분석하였다.

<지재권 활동 중소기업 고성장 가능성 1.36배 → 정보통신업 2.69배, 제조업 1.39배>

중소기업이 특허, 상표 또는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을 선행하면 고성장 가능성이 출원 활동을 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1.36배로 증가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에 따른 고성장 가능성을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정보통신업이 2.69배로 가장 크고,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업종인 제조업은 1.39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식재산권 출원에 따른 업종별 고성장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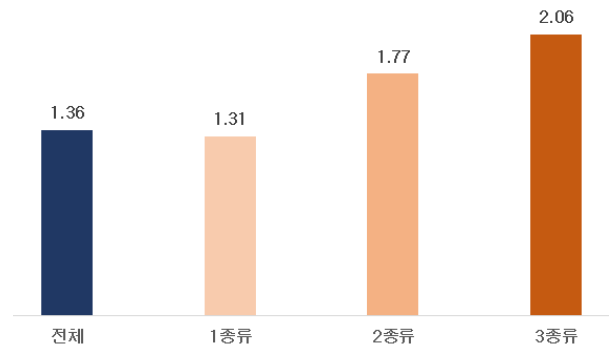


<특허, 상표 및 디자인 모두 출원 시, 고성장 가능성이 2.06배까지 상승>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을 할 때, 특허, 상표 또는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3종류를 모두 출원하는 경우 고성장 가능성이 2.06배까지 상승하였다.

반면, 중소기업이 특허, 상표 또는 디자인 중 어느 1종류만 출원하면 고성장 가능성 증가가 1.31배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식재산권 출원 종류별 고성장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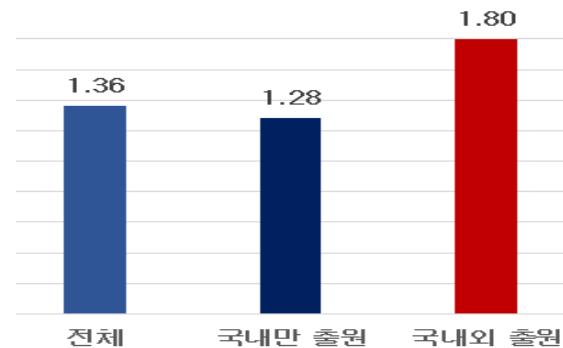


<해외 지식재산권까지 출원한 중소기업, 고성장 가능성 1.8배로 증가>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도 고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을 한 중소기업은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고성장 가능성이 1.28배 높았으나, 해외 출원 활동을 병행한 기업은 고성장 가능성이 1.8배까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지식재산권 활동별 고성장 가능성>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지식재산 컨설팅 강화해야>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은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이 중소기업의 고성장 가능성을 크게 증대시킨다는 사실은 중소기업 성장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지식재산권이 중소기업의 고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났다”며,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고도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필요한 지식재산 컨설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별첨: 「고성장 중소기업과 지식재산」 보고서

담당 부서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한 덕 원 (042-481-5168)
		담당자	사무관	윤 규 선 (042-481-5309)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진흥정책과	책임자	과 장	-
		담당자	전문관	류 지 연 (044-202-4227)